

뉴질랜드 '쿠뮤 필름 스튜디오' 전주에 동지 수능 당일 교통약자 수험생 이동 지원

세계적 영화촬영소로 한국법인 출범식 개최... '아시아 제2스튜디오' 전주 유치도 급물살 기대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뮤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s)가 대한민국 영화의 도시인 전주에 동지를 열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쿠뮤 필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주가 글로벌 영화영상산업의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5개 거점별 특화단지 조성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기로 했다.



전주시와 쿠뮤 필름 스튜디오는 12일 데메이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피터 유 쿠뮤 필름 스튜디오 대표, 주한뉴질랜드 대사관 박정민 공관 차석, 이장호 한국영상위원회 위원장,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국내 영화영상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쿠뮤 필름 스튜디오 한국법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인이 설립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촬영 인프라를 기반으로 영화영상산업의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거점별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쿠뮤 필름 아시아 제2 스튜디오 유치를 비롯해 △탄소중립 영화영상 촬영단지(상림동 일원) △전주형 영화·관광산업 융복합 문화단지(고사동 영화거리 일원) △미래 영상기술 융복합 거점(전주역 일원) △방송·미디어 영상콘텐츠 단지(만성동 일원) 등을 통해 '영화영상산업 펜타곤 벨트'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피터유 쿠뮤 필름 스튜디오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주에 쿠뮤 필름 스튜디오 코리아를 설립하게 된 것은 전주의 탁월한 문화적 자산과 전주 시민들의 열정 덕분"이라며 "전주가 한국을 넘어 세계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쿠뮤 필름스튜디오의 전주 진출을 통해 전주가 국제적인 영화 산업 도시로 성장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전주시는 글로벌 영화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활기찬 영상 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할 계획이다. 제공된 부지에는 실내영화촬영장인 사운드스테이지를 시작으로 야외촬영장 등 다양한 영화 관련 인프라 구축을 쿠뮤 필름 스튜디오와 협의를 나갈 예정이다.

특히 쿠뮤 필름 스튜디오는 한국법인인 '쿠뮤 필름 스튜디오 코리아' 설립을 통해 단순한 영화 제작 시설의

역할을 넘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인재를 발굴하며 글로벌 영화사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주시와 상생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쿠뮤 필름 스튜디오의 한국법

전주시설공단, 14일 오전 6시부터 고사장 무료 운행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교통약자 수험생들이 2025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공단은 수능이 실시되는 14일 당일 교통약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지콜'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해 수능시험 당일 무료로 운행하는 이지콜 택시

당일 오전 6시부터 시험 시작 전까지 전주 시내 고사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이지콜 등록 이용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배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험생들의 컨디션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공단은 또 시험 당일 응시생들에게

소정의 응원 선물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지콜 무료 운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공단 교통약자지원부(063-239-27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교통약자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고장에 도착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오랜 숙원 '전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문 열었다

덕진구 장동서 개장식 가져... 계획 수립 11년 만에 완공

대형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반쯤 주차문제를 해소할 공영차고지가 전주에 들어섰다.

시는 12일 덕진구 장동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형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운수업계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개장식을 가졌다.

전을 반영해 수면실과 샤워장, 체력단련실, 휴게공간 등 부대시설도 갖춰졌다.

화물 공영차고지는 전주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며, 시는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차고지를 임시 개방한 후 내년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12일 덕진구 장동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형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운수업계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개장식을 가졌다.

시는 화물 공영차고지가 조성된 만큼 임시 개방 기간 주요 도심권과 도로변 불법주차 구역에 반쯤 무단 주차하는 화물차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 운수 종사자 및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제2의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지를 선정해

공간을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양광식 전북일반화물협회 이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은 전주시 화물업계의 오랜숙원이자 지역사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서 "전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조성된 차고지는 지역경제와 화물업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협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오늘 우리가 큰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화물 운수 종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완산·덕진아동전문보호기관과 현안 논의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12일 완산 아동전문보호기관(관장 김미선), 덕진 아동전문보호기관(관장 최은희)과 간담회를 통해 아동정책 추진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홍보,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모두가 나서서 보호해야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전문보호기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경찰청, 2025학년도 수능 대비 특별교통관리 시행

전북경찰청은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을 위해 특별교통관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6개 시험장을 중심으로 410명의 경찰 및 협력단체 인력과 96대의 순찰차·싸이카를 배치해 원활한 교통관리에 나선다.

실을 돕기 위해 수송 지원도 예정돼있으며 각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차 차량 및 경적 등의 소음 유발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최종문 청장은 "수능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들은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그 외 차량의 경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우회하는 등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뉴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